

	<p>-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p> <h1>보도자료</h1>	
<p>■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p>	<p>사진 ×</p>	<p>영상 ×</p>
<p>■ 내용문의 :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220-2560)</p>	<p>소상공인지원팀장 류석열(220-2561) 업무 담당자 주지영(220-2562)</p>	
<p>■ 2025년 6월 28일(토)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충북도, 2025년 제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570억원 지원

-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 도입 -

충북도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지역 소비 위축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제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570억원을 7월 1일(화)부터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착한 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차 자금은 도내 소상공인 중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114억원(제3차 지원규모의 20%)을 별도로 배정하여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의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예약없이 직접 지점을 방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전화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신청 후 재단의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증

드림' 등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미신청 자금은 일반 지원 자금으로 전환하여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보증 드림 앱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 지점

본점(☎ 249-5700), 동청주지점(☎ 279-7950), 충주지점 (☎ 249-5760), 남부지점(☎249-5780), 제천지점(☎ 249-5790), 혁신도시지점(☎ 249-5770)